

새벽의 서곡

대 본 집

고다현 김가율 김승연 김은우 김진욱 김찬송 노온유 박하영
윤은채 이가은 이주하 이지아 이지윤 임하진 정선규 최찬규

조영민 선생님

새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지나 찾아온다

/ 시놉시스

1919년, 공주 영명학당의 소녀 유관순은 미국인 선교사 사애리시를 만나 처음으로 배움을 얻는다. 사애리시는 남편 로버트 선교사를 조선 땅에 묻고도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인물로, 유관순에게 글자와 신앙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법을 가르친다.

이화학당으로 편입한 유관순은 3.1운동의 물결 속에서 담을 넘어 거리로 나선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을 경험하고 고향 천안 아우내로 내려온 그녀는 스승 사애리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스승 자신에게 되돌려주며, 고향에서 또 한 번의 만세운동을 계획한다. 유관순은 매봉산에 봉화를 올리고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을 이끈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제를 잃는 비극으로 끝나고, 유관순은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다.

사애리시는 제자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일본 경찰과 맞서고, 마침내 정동교회 마당에서 치러지는 조용한 장례식에서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완성된 사명'으로서 유관순의 삶을 증언한다.

S#1. 1920년 10월 14일. 정동교회. 유관순의 장례식.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 끝에 숨을 거둔 유관순의 시신이 가까스로 인도되었다.
교회 주위를 둘러싼 일제 헌병들의 감시로 인해 현장은 숨이 막힐 듯 삼엄하다.

정동교회 종탑의 종이 묵직하게 세 번 울린다.
흰 상복 차림의 마을 사람들이 유관순의 관을 들고 천천히 무대를 가로지른다.
행렬의 가장 앞에서는 사애리시가 유관순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걸어온다.

빨랫감을 안고 지나던 한 동네 사람이 영정 속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발걸음을 멈춘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마을 사람 1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저, 저… 관순아! 어떻게 관순이가…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급하게 몰려온다.

마을 사람 2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 새파랗게 어린 것이…
마을 사람 3 그러게 그런 일을 왜 해서… 부모 잃은 것도 모자라서 제 목숨까지…
마을 사람 4 아니, 대체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된 거요?
마을 사람 5 이게 다 노란 머리에 시퍼런 눈 한 그 여자 때문 아니오!
처음부터 보통 사람은 아니다 했소.
그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 뒤로 조용할 날이 없지 않소.
마을 사람 6 옳소! 그 사.. 뭐라더라? 사.. 그래, 사애리시! 그 사람 말이오.
(짧게 한숨을 내쉬며) 여자 애한테 괜한 바람을 넣어가지고…
마을 사람 7 목소리 낮추시오. 저 부인도 마음이 오죽하겠소.
마을 사람 5 뭐가 조심이오! 결국 저 부인이 거둔 아이 아니오!

M01. <배운 것이 죄가 되어>

마을 남자들

저 푸른 눈의 선교사는 왜 저기 서 있대?
제자랍시고 거두더니 결국 장례까지 치러주는구먼
멀쩡한 아이 데려다가 대체 뭘 가르친 게야?

마을 여자들

순사들이 서슬 퍼렇게 도끼눈을 뜨고 보는데
아이고, 저기서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게 하네
계집애가 장터에서 만세를 부른 것도 다 학교에서 배운 탓이지

마을 사람 4

부모는 총칼에 쓰러지고

마을 사람 5

동생들은 길바닥에 나앉고

마을 사람 2

홀로 남겨진 가여운 것을 보게

마을 사람들

쯧쯧, 왜 배워가지고, 왜 배워가지고!
그놈의 교육을 왜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 3

글이나 배우더니 귀한 목숨만 허망하게 꺾였구나.

마을 사람들

말하면 다치는 세상
입 닫고 사는 세상
아는 것이 독이 되고 배운 것이 죄가 되어
누군가는 잊어버리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마을 사람들

그런데도
왜 저 부인의 눈물은 멈추질 않나
왜 저 아이의 외침은 끝나질 않나
왜 저 부인의 눈물은 멈추질 않나
왜 저 아이의 외침은 끝나질 않나

다시 한번 묵직한 종소리가 세 번 울리고, 마지막 종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뒤편으로 물러나 어둠 속에서 수군거린다.

사애리시 관순아, 네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위험한 일이었는지 알고 있니?
거기서, 네가 한 일들을 보고 있니?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그분 뜻대로 했어요.
그분이 바라시는대로 여기에 온 거고, 그분이 부르시니까, 이 아이도 보낸 겁니다.

관순이 너도, 그분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듣더니, 결국 그분을 만나러 갔구나.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S#2. 1908년 여름. 공주읍내 개울가.

매미가 쉴 새 없이 우는 어느 여름 아침.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빨래터에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아아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고 있다.
빨랫방망이 두드리는 소리와 아주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냇물 소리에 섞여 흐른다.
그 옆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일손을 도와 고사리손으로 빨래를 주무르다가도 연신 투덜거린다.

아이 2 (젖은 빨래를 들었다 내려놓으며) 아유 팔이야, 복순아, 냇물은 안 힘들까?
아이 1 응? 냇물이 왜?
아이 2 맨날 우리 빨래만 씻겨주잖아. 아침부터 쉬지도 않구.
아이 1 (피식 웃으며) 별 걱정을 다 하네.
아이 2 (한쪽 어깨를 두드리며) 아휴, 아까부터 팔 빠지게 헹궜는데
어째 빨래가 줄기는커녕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어?
그냥 확! 냇물이 우리 빨래 다 가져가버렸으면 좋겠다.
아이 1 으이구, 투덜거릴 힘 있으면 얼른 손이나 놀려.
그러다 너희 엄니가 널 먼저 잡아가시겠다.

반대편 길목에서 사애리시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수한 마을 풍경 사이로 단정한 차림새가 유난히 눈에 띈다.
아이 하나가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하곤 고개를 갸웃한다.

아이 2 (눈을 찌푸리며) 어? 저기 누구지?
아이 1 응? 누구 말이야?
아이 2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이상하다. 저분, 꼭 지난 번에 떠나신 사부인 같지 않아?
아이 1 사부인? 에이, 설마. 그때 로버트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못 봤잖아.
아이 2 그래도 봐. 우리 마을에 저렇게 키 큰 사람이 어딨어.
저 모자도 그렇고… 저렇게 걷는 것도 틀림없이 사부인 같은데.
아이 1 그래도 그렇지. 미국 땅은 엄~청 멀다던데.
아무리 사부인이라도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와.
그리고 여긴… 선생님께 제일 슬픈 곳이잖아.
아이 2 (시무룩한 말투로) 그건 또 그래. 내가 잘못봤나?

사애리시는 빨래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잠시 걸음을 멈춘다.
떠나던 날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을 풍경에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 끈을 더욱 꼭 쥔다.

사애리시 여긴 여전하구나… 저 들꽃도, 냇물도, 저 아이들도 다 그대로야…

사애리시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
익숙한 얼굴이 드러나자 아이들은 젖은 손도 미처 털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간다.

아이 4 (반가운 말투로 있는 힘껏) 어! 사부인이다! 선생님
아이 2 뭐? 사부인??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사애리시를 에워싼다.

아이 4 선생님, 저희 다 기억하시는 거죠?
사애리시 그럼 당연하지. 너희 얼굴을 어떻게 잊겠니.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떠나 있는 동안에도 늘 궁금했단다.
아이 1 선생님…
사애리시 그런데 지금쯤이면 글 공부를 하고 있을 시간 아니니?
늘 이 시간이면 너희가 제일 먼저 달려왔었잖아. 교회에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아이 1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게요… 저희 이제 교회에 못 가요.
이제 저희가 수업 들을 자리가 없대요.
사애리시 자리가 없다니, 어째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이 1 예배당이 워낙 좁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모여도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마을 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자리가 모자라니까 우선 글을 좀 아는 남자 아이들부터 들여보내라고요.
집에 가서 해야 하는 일도 많은 우리보다는 남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세상에 훨씬 보탬이 될 거라고… 왜요? 우리는 세상에 보탬이 안 되나요?
선생님… 선생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 4 이제 저희는 다시 글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사애리시 대체 무슨 소리니.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다.
복순아, 너 기억하니? 네가 처음 글자를 읽던 날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어렵다고 내팽개친 글자를 너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
선생님이 몇 번이나 쉬자고 해도 반짝이던 네 눈빛을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한단다.
아이 1 정말요? 제가… 그랬어요?
사애리시 그럼. 네가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건 몇 사람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알기를 바라신단다.
너희가 그분을 알고 싶어 손을 내밀었다면…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니.
아이 3 하지만 선생님…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면 할 일도 많고, 여자아이가 공부한다고 하면 괜한 소리 듣기도 하는걸요

사애리시 배운다는 건 꼭 글자를 알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란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도,
너희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배움이거든.
글을 알면 네 생각을 네 말로 적을 수 있고,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단다.

아이 3 그럼… 혹시 저도 같이 배울 수 있나요? 저 같은 아이도요?

사애리시 물론이지.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도 배우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단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직 네 이름을 못 들은 것 같구나. 너는 이름이 뭐니?

아이 3 저요? 저는 그냥… 말년이라고 불러요.

사애리시 말년이구나. 너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니?

아이 3 (고개를 갸웃하며) 왜요? 집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부르던데요.

사애리시 그래? 그런데 선생님은 네가 아주 오래도록 불릴, 너만의 예쁜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아이 3 이름이 뭐가 중요하대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불러주는 대로 사는 거죠.

사애리시 (빨래터 한쪽에 피어난 제비꽃을 발견한다. 조심스럽게 꺾어 아이의 머리에 꽂아준다)
봐. 이 작은 꽃에도 제비꽃이라는 이름이 있단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불리는 꽃은 하나도 없어.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불러주는 일이란다.

아이 3 소중함… 저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사애리시 물론이지. 선생님이 너랑 꼭 어울리는 이름 하나 지어줄까?

아이 3 정말요? (화색을 띠며) 네! 지어주세요.

사애리시 음… 연희 어떠니? 작은 물결도 반짝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더구나.
저 냇물을 보렴. 저기 작은 물결들도 흐르고 흐르다 보면,
언젠가 넓은 바다를 만나 바다와 춤을 추게 될 거야. 너도 꼭 그렇단다.

아이 3 연희… 제 이름이 연희래요. 마음에 쏙 들어요.

사애리시 (아이의 머리에 꽂힌 제비꽃을 살며시 만지며) 그래 연희야, 참 잘 어울리는구나.

아이 1 선생님… 정말 꿈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를 이렇게 다시 듣는 것도,
이렇게 저희 옆에 계시는 것도요. 사실 저는… 선생님이 다시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 2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 괜찮으신 거에요? 이제는 마음이 다 아무셨을까요?

사애리시 슬프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지금도 내 마음 한 쪽에는 슬픔이 남아 있단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슬픔보다, 너희가 품고 사는 슬픔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
너희도 아무한테도 말 못 하고 혼자 가지고 있던 슬픔이 있었지?
나는 그 마음을 봤어.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슬픔을 만나러 왔단다.
선생님… 정말 저희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오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이 1 그럼. 아직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단다.

사애리시 천안에도, 논산에도, 강경에도 말이야.
그 아이들도 꼭 너희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갈 곳이 많으면… 혹시 또 멀리 가시는 건 아니죠?

아이 2 선생님 제 생일 때는 오실 수 있어요? 봉람이 돌 때는요?
일단 다음 주에는 꼭, 꼭! 오셔야 해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는다) 그래, 약속. 내가 너희를 두고 어딜 가겠니.

사애리시 이곳이 내 집인걸. 다녀와서 새로 만난 친구들 이야기도 들려줄게.

아이 3 사부인께서는 미국 땅보다 여기가 더 좋으세요?

사애리시 응 그럼.

아이 1 그곳은 건물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면서요.
왜 여기가 더 좋으세요?

사애리시 당연히 너희가 있어서지.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시려고 너희들을 주셨나보다…
벌써 갈 시간이 되었네? 다녀와서 새로 만난 친구들 이야기도 들려줄게.

S#3. 1914년, 천안 지령리교회

이소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저 관순이 좀 보게요.
교회만 오면 어린것들이 죄다 관순이만 쫓아다닌다고 난리예요.

유중권 허허, 날 때부터 대장 노릇은 타고났지. 피는 못 속이는구먼…

이소제 아니 이렇게 영특한 아이를, 언제까지 담장 안에서만 공부하게 둘 셈이에요?
글 하나만 깨우쳐도 혼자 기뻐하는 법이 없어요.
동생들이며 동네 아이들까지 불러 모아서 가르치려 하잖아요.

유중권 우리 관순이는 뭐, 성경 한 번 읽어주면 그대로 외우고,
남들 한 달 걸릴 걸 사흘이면 깨우치잖소.
관순이 배우는 건 내가 제일 잘 아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요.
아직은 내 곁에 두고 하나씩 가르치고 싶소.

이소제 여보도 참… 당신이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겠어요?
학교라는 게 집에서 글만 가르친다고 되는 거래요?

유중권 … 나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소.
그런데 여자아이를 학교 보내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이소제 허 참, 남의 애들 배우라고 집안 기둥 뽑아서 학교까지 세운 사람이…
그 학교에 우리 관순이는 못 간대요?

유중권 (한참 말이 없다가 씁쓸하게) 세상이 아직 그렇잖소…

사애리시 관순이 아버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중권 예, 선생님.

사애리시 혹… 관순이를 학교에 보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중권 생각이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보내고 싶은 저희 마음은 누구보다 큽니다. 하지만..

사애리시 그런데..

유중권 (한숨을 쉬면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세우느라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많이 기울어졌지요. 공주까지 보내려면 학비도 필요하고
지낼 곳도 마련해야 하고.. 여자 아이기도 하고… 꼭 공부를 시켜야하나 싶습니다.

이소제 여자 아이가 왜요! 밤마다 글자를 나무 판대기에 써가면서 혼자 공부하는
우리 관순이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져서 고개를 못 듭니다..

사애리시 그렇다면 더더욱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버님, 글을 아시는 아버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배움입니다.

이소제 어린나이에 공부를 해야 미래도 있는 법이지요.
글을 알고 세상을 아는 것만이 관순이가 살아나갈 방식이에요.

유중권 ..예? 제 어미를 닮아 불의를 보면 눈 뒤집히는 아이입니다.

이소제 그런 아이에게 세상 보는 눈까지 주면, 기어이 이 부당한 세상에 들이받으려 하겠지요.
저 소중한 딸아이가 제 뜻대로 살려다 세상에 데일 바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그 뒤에 스스로가 판단할 일입니다.

유중권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그것 뿐 아닐까요.

이소제 그러면 선생님, 우리 관순이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사애리시 관순이를 공주에 있는 영명여학교로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이소제 네?

사애리시 마침 영명학교 바로 옆에 제가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게 될 터라 관순이랑 생활하면서 공부도 봐주고,
낯선 곳에서 힘들지 않도록 곁에서 잘 살피겠습니다.

유중권 면목이 없습니다.

사애리시 아닙니다. 제가 더 좋지요. 혹시 알겠어요. 상실이 있는 마음에서 꽃을 피울 줄…

유중권 마침 저기 오는군요. 관순아!

유관순 (저 멀리서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책보를 들고 걸어온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유중권 관순아 너… 공주에 가보지 않을래?

유관순 공주요? 공주에는 무슨 일로요?

유중권 선생님이랑 공주에서 학교에 다녀보고 싶으냐는 말이다.

유관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보며 망설이다가) 네? 네… 네! 가고싶어요.
학교라는 곳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하지만.. 엄마, 아버지랑 떨어져야 하잖아요..

이소제 (관순을 꼭 안아준다) 멀리 가도 너는 언제나 엄마 아빠 딸이란다.
가서 많이 배우고, 네가 가서 배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엄마와 아빠는 더 행복할 것 같구나.

유중권 (사애리시에게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 우리 관순이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여식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죽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애리시 살아서 갚으셔야지요. 우리가 잘 살아서 이 아이들의 앞길을 잘 안내해주어야지요.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공주에서는 제가 관순이의 보호자가 되어 이 아이의 앞길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S#4. 1908년, 공주 천당집.

공주 영명학교 인근 사애리시 선교사 사택. 사애리시는 관순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책상 위에 놓인 등불로 창밖의 어둠을 몰아내고, 따뜻한 빛으로 공간을 밝히고 있다.
관순은 생전 처음 보는 높은 천장과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구조의 방에 압도된 듯 눈을 반짝이며 사방을 둘러본다.

유관순 와아... 사부인, 사람들이 왜 여기를 '천당집'이라고 불렀는지 알겠어요.
조선 땅에 이렇게 크고 예쁜 집이 또 어딨겠어요.
제가 정말 이런 환한 곳에 머물러도 되는 걸까요?

사애리시 그럼, 되고말고. 어쩌면 이 집이 오랫동안 관순이 너를 기다려온 걸지도 모르지.
동네 사람들이 왜 이곳을 천당집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니?

유관순 지붕이 하늘에 맞닿을 만큼 높아서요?

사애리시 (소리 내어 웃으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실은 예전엔 마음 사람들이 이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렀단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노래하던 그 시간이 너무 기뻐서 여기가 꼭 천당 같다고 그렇게 불렀어.
누구나 들어와 쉴 수 있는 곳이니까, 관순이 너도 마음 푹 놓고 머물면 된단다.

유관순 선생님이 계신 천당집도 이렇게 좋은 곳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더 따뜻하고 좋은 곳일까요?
우리 엄마 아빠도, 고향 동생들도 다같이 이런 곳에서 살면 좋겠어요.

사애리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눈에 보이는 크고 좋은 집을 말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먼 곳도 아니란다.
서로를 아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곳이 바로 천당집이 되는 거야.

유관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요…
선생님, 고향에서 겨우 백오십 리 걸어왔을 뿐인데 제가 천국에 와 있네요.

M02. <사부인의 부탁>

유관순

문 하나 넘어왔을 뿐인데
이 천당집은 어쩌면 이렇게 넓고 환하네요
기워 입은 치마에 말투도 촌스러운데
내가 이런 멋진 곳에 머물러도 될까요
낯선 도시, 낯선 시선들이
솔직히 조금은 무섭고 두려워요

사애리시

나 역시 평생을 낯선 땅, 외딴 길만 걸어왔단다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차가운 시선 속에
가끔은 이 넓은 집이 너무 시리고 외로웠는데
네가 이 작은 불빛을 따라
내 집의 문을, 이 닫힌 문을 열어주었구나

유관순 (방 안을 둘러보다 낡은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댄다) 어머 사부인,

이 서랍장은 사부인이 쓰시던 거예요?
이 시계도 그렇고 손수건도… 참 예뻐요…

사애리시 어, 그래… 그건 말이야…

유관순 왜요? 부인께 아주 소중한 물건인가요?
어쩐지, 손때가 묻었는데도 너무 예뻐요!

사애리시 (천천히 다가와 서랍장에 손을 올리며) 아…… 그건,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내 남편 로버트의 물건이란다.

유관순 (손을 얼른 떼며 아차 싶은 표정으로) 아, 죄송해요.
제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로버트 선교사님의 소중한 흔적들이 이 집 곳곳에 많이 남아 있겠지요?

사애리시 (쓸쓸하게 웃으며) 그래, 이 집은 그와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으니까.
같이 물 건너온 저 서랍장, 저 그릇들, 그이가 제일 좋아했던 책,
매일 읽던 성경책까지 전부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한다)

유관순 (사애리시의 옷자락을 잡으며) 선생님… 울지 마세요.
제가 아픈 곳을 건드렸네요. 죄송해요.

사애리시 아니야, 관순아 미안하구나.
아직도 그 사람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나 봐.
그를 잊는 것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준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만 같아서…
눈 감으면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데 눈을 뜨면 만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
그래도 네가 여기에 오니 조금은 그 텅빈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

유관순 정말요?
제가 선생님의 집을, 그리고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뻐요.
이제 제가 말동무 해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심심할 틈이 없게 해드릴게요.

사애리시 고맙구나 관순아.
너를 이곳에 데려온 것이 어찌 나를 위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유관순

사부인 눈동자가 아득해 보여요
넓은 집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섬처럼
약속할게요, 다신 열어보지 않을게요
이제 이 길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사애리시

그래 고맙구나 대견한 내 제자야
비록 먼저 간 그 사람의 숨결은 서랍 속에 멈췄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새로운 우리 가족이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잖니

사애리시

이제 내 집 문을 열면 거기가 네 집이야

친척이 없어도 우리가 이웃이 되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갈
지치고 험한 길 위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네가 외로워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크고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유관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 우리의 공동체… 정말로요…?

사애리시, 유관순

조금 서툴고 모든 게 낯설지라도
이제는 외롭지 않게 이 손을 잡고

유관순

(따뜻한 당신의 품을 따라)

사애리시

(내 방에 들어온 너를 위해)

사애리시, 유관순

하나의 꿈을 향해 같은 길을 걷는 우리
여기가 서로의 집이 되어주네
배움은 힘이 되고 아는 것은 빛이 되어
우리 가는 길을 포근히 비추리라

S#5. 1914년, 영명여학교. 사애리시의 교실.

사애리시 자, 다들 주목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발 밑에서,
평생 벽돌을 굽고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았던 이야기,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네- 하고 대답한다.

사애리시 수백 년이었어요.
사방이 꽉 막힌 제국에서 매일 채찍질 당하며 살았죠.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전밀라 무서우니까요. 이집트가 너무 거대해 보였겠죠.

사애리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다들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사애리시 거대한 피라미드의 그늘을 당연한 세상으로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어떤 공기인지 맛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거대한 피라미드의 그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유관순 해방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얻는다는 것도요.
그 자유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애리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 주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임영신 선택이요? 무엇이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전밀라 중요한 건 그런 세상이 온다면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지요?

사애리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왜 자신들이 독립해야 하는지 처음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노마리아 십계명이 그런 의미였군요. 국가에 필요한 법 같은….

사애리시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미국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법이라고.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백성들이 직접 뽑는다고…

사애리시 맞아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그 나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임영신 우리는 아직 그 법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잘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애리시 그러니 교육이 필요한 거에요.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하는 거죠.

전밀라 우리 민족에게도 그 십계명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우리는 불안해요.
아직 세상이 어둡게 느껴져요.

사애리시 그래요. 아직 어둡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우리 학교 이름이 '영원한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전원 아~

노마리아 그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세상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모세같은 영웅이 나타나면 되는 걸까요?

사애리시 (부드럽게 고개를 저어보인다)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싫어서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도망치려 했던
아주 평범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본래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숨어버렸던 사람이거든요.

유관순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기어이 부르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지…

사애리시 그 무시무시한 군대 앞에서 자기가 가진 게 고작 양 치는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니까.
무서워서 벌벌 떤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대단한 칼이나 군대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겁쟁이 마음 속에 불을 질러 버린 거예요.
저기서 내 백성이 매를 맞고 우는데, 네 눈은 그게 안 밟히냐고.

유관순 눈에 밟히는 거요?

사애리시 그래요 눈에 밟히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 남들은 다 넘어가는 그 서러운 풍경이 내 눈에 기어이 밟혀서,
결국 발을 떼게 만드는 지독한 거 말이예요.

유관순 선생님… 그렇다면, 모세처럼 낡은 지팡이조차 없는 저희는요?
총칼이 가득한 이 캄캄한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같이 어린 소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긴 한 걸까요?

사애리시 (유관순의 책상을 두드리며) 여길 보세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 뭐가 있지요?
성경책과 공책, 연필 한자루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지팡이예요

임영신 성경이랑 연필요? 이걸로 저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사애리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전밀라 진리로 자유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애리시 나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이, 내 영혼보다 작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들이 여러분을 향해 총구를 겨눠도,
여러분이 귀하고 넓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분의 영혼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M03. <봄의 주역>

사애리시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학생들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학생들

ㄱ, ㄴ, ㄷ, ㄹ 고향의 글자들
A, B, C, D 건너온 글자들
지루한 수업 시간은 가라 책상을 두드려라 쿵쾅!
글자를 배울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달려오네

사애리시

자, 얘들아!

학생들

이 세상엔 저마다 품은 다양한 사명들이 있단다
누군가는 아픈 이를 고치고
누군가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누군가는 목소리 내어 세상을 바꾸지

유관순

그럼 저마다 다른 길이 있단 말씀이세요?

사애리시

정답!
우리가 배우는 이 글자들은 바로 너를 찾는 지도
글을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내가 보이지
깨어나 눈을 뜨는 자만이 제 역할을 찾는 법

학생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갇혀있는 동포들을 품고
순한 마음으로 상처 가득한 이 나라를 보듬는 사람
사슬을 끊고 나갈 그 길을 내가 먼저 찾을거야

학생들

그래 그 마음이 바로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작은 씨앗
스스로를 녹여 어둠 속에 잠기는 씨앗
하나가 있다면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푸른 숲을 이루지

사애리시 자, 지도를 쥔 봄의 주역들아, 너희의 역할은 무엇이니?

전밀라 선생님...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도 푸른 숲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사애리시 밀라야, 너는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끄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니?
이끌어주는거요…? 근데 사람들이 여자 목사 말을 과연 들어줄까요?
마음을 듣는 데는 직함도, 목소리도 필요 없단다.

전밀라

그렇다면 저도 씨앗이 될 수 있겠죠
조선 최초의 여성 목사가 되어
스러져가는 영혼들을 품에 안고,

푸른 숲이 될 그날까지 등불로 서겠습니다!

사애리시 마리아야, 힘없는 자가 짓밟히는 걸 보면 넌 뭐부터 하니?

노마리아 주먹부터 나가죠! ...근데 여자는 순사도 못 되잖아요, 그게 문제죠.

사애리시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만들면 되지.

노마리아 ...그 말, 마음에 드네요.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임영신 선생님! 저는 그럼 이 민족의 목소리가 되어 넓은 세상에 정의를 외치라 하시면
여자 국회의원이 되어, 상공부 장관이 되어 조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사애리시 (유관순의 두 손을 잡으며) 관순아, 너는?

유관순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포를 품고
순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보듬는 사람
선생님이 들려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내 한 몸 기꺼이 던져 조선의 봄을 깨우겠어요

학생들

겨울을 뚫고 일어설 작은 씨앗들이여
민족을 사랑함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라
주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 아는 것으로 일어서라
주어진 사명을 향해 가리라

이 땅을 품을 위 대 한 사람!
배움은 우리의 힘
주님의 빛이 되어 따라 따르리라

S#6. 1915년, 로버트의 묘지.

사애리시가 외출복 차림을 하고 문을 나서자 유관순이 따라나선다.

유관순 선생님… 오늘도 로버트 선생님의 묘지에 가시는 거지요?

사애리시 어? 그래…. 매일 아침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많이 궁금했겠구나?

유관순 네. 날마다 어딜 가시는지 궁금해서 따라나서려다가 실례가 될까봐…
언젠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아직도 로버트 선생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지요?

사애리시 (옅은 미소를 지으며) 관순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로버트가 잠든 곳에 가지 않을래?

유관순 (놀라며) 그래도… 될까요?

사애리시 물론이지. 네가 내 딸이 되었으니 로버트는 너의 양아버지인 셈이잖니.
로버트가 살아 있었다면 너를 아주 좋아했을 거야 (웃을 여며주며)

유관순 좋아요 선생님. 저도 가서 인사드리고싶어요.
제 양아버지 미스터 로버트께요!
(문을 열고 나와 산책하듯이 묘지를 향해 걷는다)
로버트 선생님은 사부인께 어떤 분이셨나요?
로버트 선생님의 유해를 이곳에 모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선생님이 미국에 가실 때 모셔가실 줄 알았어요.

사애리시 그래. 보통은 그렇게들 하지.
그런데 로버트는 나와 함께 이곳 조선에서 평생을 일할 생각으로 오지 않았겠니?
로버트도 이곳에 있길 원했을 거야.

유관순 그럼 로버트 선생님이 사부인을 찾아오셨듯이
사부인도 로버트 선생님을 찾아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사애리시 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난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단다.
미국에 가서도 이곳 생각뿐이었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남편을 두어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니?
이곳에 다시 와서 너와 이렇게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 난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구나.

유관순 저에게도 사부인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사애리시 우리 관순이는 말도 참 빨리 알아듣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나 잘 이해해준 것처럼
로버트도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단다.

유관순 선생님! 진눈깨비가 내려요.
진눈깨비는 비가 눈이 되지 못한 채 내리는 슬픈 비 같아요.

사애리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온전히 눈이 되지 못한 비….
그래도 우리는 이 '진눈깨비'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이 비에 붙여주지 않니?
그러네요. 완성되지 못한 슬픈 무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도 이름이 있네요.

사애리시 (묘비의 이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로버트가 떠난 날도… 꼭 오늘처럼 진눈깨비가 내렸단다.
눈이 되다 만 이 슬픈 비가 말이야

유관순 꼭 로버트 선생님 같군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인품 좋은 분이 너무나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가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도 급하게 로버트 선생님을 부르셨을까요?

사애리시 그래. 나도 그것이 궁금했단다.
그게 궁금했어… 왜 로버트였을까?
조선에 먼저 온 내가 아니고 왜 로버트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 이유는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보여주시지 않을까?

사애리시 지금도 이해 중이신 거지요?

유관순 관순아 로버트의 죽음의 의미를 난 다 알 수 없단다.

사애리시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실천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일거야.

유관순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
그 애통이라는 말은 그냥 슬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고통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로버트는 그렇게 간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이제 로버트 선생님도 하늘의 위로를 받고 계시겠지요?

사애리시 저는 사부인께서도 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구나 내 딸 관순아…나도 그러길 바란다. 나도 위로 받기를 원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아직 더, 더 그 뜻을 따라가야 해.

유관순 이렇게 관순이도 돌보아야 하고,
저 교실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도 가르쳐야 하고 말이야.

사애리시 밀라가 목사가 되는 것도 봐야 하고,
마리아가 경찰이 되는 것도 봐야하고,
영신이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도 봐야 하지 않겠니?
선생님은 저희가 잘 되는 것이 꿈이신가요? 그럼 선생님의 삶은요?
선생님의 꿈은 없으셨어요?

유관순 좋은 질문이구나. 있지 말이야. 너희는 내 꿈이야.

사애리시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지.
정말이요? 너무 슬프면서도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우리에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유관순 우리같은 들꽃에도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신 선생님의 꿈이라니요….
게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다면…

사애리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것이란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야.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오거나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란다.

사애리시 그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바로 사명이라고 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 말이야.
(눈시울이 붉어지며)

유관순 로버트 선생님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이루어가시다가 희생을 당하신 거군요.
이제 알겠어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역할'이란 것이,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애리시 그래 관순아, 로버트는 이 땅과 나를 사랑하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나는 그가 사랑했던 이곳의 사람들을 마저 사랑하는 중이란다.
선생님! 두 분의 그 사랑의 삶을 저도 함께 살고 싶어요.
우린 가족이라고 하셨지요? 두 분이 이 조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
지요? 저도 선생님의 딸이니 저도 그 사랑 동참하고 싶어요. 저를 왜 수양딸로 삼으셨는지 알 것 같
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도요.

M04. <로버트의 흔적>

사애리시

처음 이 땅을 밟았던 날
낯설었던 말과 낯선 사람
그래도 우린 두렵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저 믿었죠
함께 꿈꾸었던 조선 땅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 품었었죠
조선 땅을 향한 사랑의 마음

로버트

그 때는 그랬었죠
같은 꿈을 품고서 이 길을 걸어왔죠

사애리시

우린 그걸 바랐죠

로버트

밤낮으로 애썼죠

사애리시, 로버트

그때 우리가 뿌린 건 / 한 줌의 꿈

사애리시, 로버트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보이지 않아도 / 믿었죠

사애리시, 로버트

흐릿하여 알 수 없었지만 / 그저 믿었죠

함께

언젠가 이 땅에 열매로 피어날 그 날을

로버트

안락한 방에 앉아 편하게 타자를
두드리기보다 거친 바람을 뚫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했던 날들…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했던 날들

하지만 정작 당신의 곁은 지켜주지 못했소
낯선 풍토병이 내 몸을 갉아먹을 때도
날 간호하며 눈물 흘리던 당신을 두고
내가 먼저 이 땅에 묻히게 되다니

당신을 홀로 남겨두어 미안하오
하지만 후회는 없소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었으니

내가 떠나도 우리가 뿌린 열정은 살아 움직일 테니

사애리시

붉은 열병에 당신의 숨결이 차갑게 꺼져가던 그날 밤
내 손을 꼭 쥐며 바라보던 당신의 마지막 눈빛

당신의 마지막 모습
나를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게 했지만

당신의 마지막 모습
이제는 내 삶을 움직이는 거대한 나침반이 되었죠

나 또한 이 자리를 지켜내리라
당신의 못다 한 사랑을 이어받아 살아가리

로버트

기억하오, 우리의 삶은 언제 바람이 될지 알 수 없는 것
그러니 내일을 약속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일어나 전진하리

S#7. 1919년 2월, 이화학당

사애리시 (우체통에서 기쁜 표정으로 편지를 꺼내며) 어머, 관순이로부터 온 편지네?
잘 지내고 있으려나?
"선생님 벌써 이화학당에 온지 한 달이 다 되어가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유관순 (사애리시와 마주하고 말하듯)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 수업은 조금, 아니 많이 어려워요.
아휴, 어쩌 죄다 처음 듣는 말들이래요?
선생님께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코가 납작해졌어요.
아! 그리고… 음… 얼마 전에 품행 낙제를.. 받게되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살짝 말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웃었더니…
(잠깐 고민하고 줄을 쓱쓱 긋는다) 음.. 아니야 이건 지워야겠다.
(헛기침을 하며) 아니 그런데 김란사 선생님은 어쩜 그리 칼 같으시대요?
밤에 방 애들이랑 배고파서 만두 좀 사왔더니, 아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리 뭐라 하시더라구요! 무서워 죽겠어요.
선생님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보고싶어요.
(발랄하게) 유관순, 배상!

사애리시 이화학당 유관순 양 친전.
관순아. 편지 잘 받았다.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유관순 (편지를 가져가 읽는다)

사애리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기숙사 친구들은 어때?
수업이 많이 어렵나보구나.
이경덕 선생님은 작문에 능하신 분이니 틈틈이 그분 글을 찾아 읽고
김란사 선생님은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신 분이시니
낯설더라도 악착같이 매달려 많은 걸 배우길 바란다.
미리견으로 유학도 다녀오셨으니 영어가 어렵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구나.
관순아, 많은 걸 배워 그 배움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그런 큰 사람이 되길 바라.
그러니 부디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하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부디 몸 성히, 마음 또한 평안히 지내길.
사애리시 서.

유관순 사선생님 좌하. 친구들? 많아서 탈이죠! 기숙사 애들이랑 제일 친해요!
그리고요, 저번 무단외출 사건 때문에 수업도 못 들어가고 반성문만 잔뜩 썼어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그 와중에 희자는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김선생님이 격분하시면서 희자 찾으러 나가셨어요!
(키득거리며) 근데 선생님이 나가시고 얼마 안 돼서 길이 엇갈렸는지
희자만 돌아온거 있죠?
그리고.. 음.. 아니, (쉽게 말을 잇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 밖에서는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잡혀가더라고요…
정말 말 한 마디였는데, 저희 또래 애가..! 무서웠어요.
이런 때 나는 이러고 있는 게 맞는지, 하고요…
(억지로 밝게 말하며) 그래도 이화가 저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걱정마세요! (첫 편지와 달리 발랄함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더해진 목소리로)
유관순 배상.

사애리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며)
최근에 프라이 교장선생님을 만났단다.
너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
네가 네 민족을 위해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기뻐.
참, 요즘 네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편지와 함께 보낸다.
사랑한다. 네가 더 큰 세상을 만나 큰 사람이 되기를.
사애리시 서…

유관순 책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책은 받자마자 다 읽었어요.
책을 덮고 나니까요.
두렵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들이랑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밤에 몰래 만드는데 천이 부족하니까
현숙이가 냅다 이불보를 찢어서 만드는 거 있죠?
복순이는 놀래서 소리를 빽 지르려 했는데
명학이가 딱 그 입을 틀어 막아서 살았어요.
명학이 아니었으면 또 낙제였을 거예요.
명학이, 복순이, 희자, 현숙이 말고도
민족의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 얘네들이 제 방 친구들이에요.
명학이가 그러는데 요즘 운동이 일어날 것 같대요.
아무래도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아마, 친구들과 힘을 모아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관순 전.

사애리시 (편지를 내려 놓고 환히 웃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깊게 생각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아라.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앞날을 인도해주길 바란다.
오래오래 남는 그런 등불이 되어 그렇게 남을 품어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게.

유관순 배움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태로운 조국을 눈 앞에 두고 어떻게 앉아만 있을 수 있겠어?
당장 밖으로 나가기만해도 너무나도 어두워 살아갈 빛조차 보이지 않는데
이 배움으로 먼 훗날을 도모하기엔 너무 멀어.
오늘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일의 새벽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시대가, 그리고 그 민족이 우릴 부르고 있으니까 내 역할을 해야 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꺾이고 넘어져도 뜨겁게 살고 싶어.

M05. <행동해야 해>

유관순 선생님…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유관순

매일 밤 밤새워 받아 적던 성경 구절
배움의 끝엔 무엇이 기다릴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담장 너머 들려오는 소리 글자
속에 갇혀 있기엔 세상이 너무 뜨거워

태극기를 그릴 때 내 손끝이 떨린 건
들킬까 무서워서가 아닌,
책장 속에 숨겨둔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사애리시

사랑하는 내 아이 관순아
무지한 이 땅을 구하는 것은 오직 배움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혜와 명철을 채우렴
더 넓은 세상에서 먼저 지식을 배워오렴

유관순 선생님, 거리에서 사람들이 피를 흘려요! 지금 배우는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사애리시

더 깊이 배워야 더 많은 사람을 섬긴단다

유관순

가만히 앉아 글만 읽기엔

사애리시

조선에 피어날 가장 지혜로운 꽃

유관순

내 조국이 지금 나를 부르잖아

행동해야 해 지금 당장
책 꼬가리 뒤에 숨어 눈감지 않아
내 욕망은 오직 하나
빼앗긴 내 나라 내 손으로 새벽을 여는 것

사애리시, 유관순

배워야 한다, 내 아이야 (행동해야 해)
이화의 빛이 되어 지식을 채워라 (지금 당장)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와 다스리라 (더는 숨지 않아)
그것이 이땅을 구원할 길 (여는 것)

유관순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지금 현장으로

사애리시

너의 그 눈부신 지혜로 준비해라
미래의 빛이 되어라

S#8. 1919년 3월 1일, 이화학당 정문

프라이 교장이 무거운 교문에 굵은 쇠사슬을 감는다.
자물쇠를 걸어 잠근 교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돌아서자, 유관순과 학생들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 선다.
그 뒤로 희자, 복순, 명학, 현숙 외 학생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다.

M06. <문을 넘어>

유관순

멀고 먼 내일의 안위를 말하지 마소서
계산된 안전 뒤로 숨지 않겠나이다

겨울을 깨고 피어날
봄의 주역이 되라던 그 목소리
차가운 흙 속에 묻힌
로버트 선교사님의 눈물이
나를 부르는 이 시간에
나 이제 움직이리라

프라이 교장

관순아, 제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저 차가운 쇠사슬이 너희를 지킬 울타리

꺾여버린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제발 이 스승의 품 안에 머물러다오

유관순

아니요 갈 것입니다

프라이 교장

위험하다

유관순

이 문을 넘어서

프라이 교장

내 임무는 너희를 지키는 것

유관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프라이 교장

지금 나가면 죽음뿐이다

유관순

스스로를 녹이는 씨앗처럼

프라이 교장

스승의 뜻을 들어라

유관순

조선의 봄을 깨우기 위해

프라이 교장

그 봄도 살아있을 때뿐이다

유관순

지금입니다

프라이 교장

안 된다

유관순

나를 부르는 저 거리로
내 나라를 위해 나를 던지리라

프라이 교장

피로 물든 저 사지로
내 소중한 너를 보낼 수 없다

유관순 전 꼭 나아가야겠습니다.

프라이 교장 (자물쇠 쥔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며 완강하게)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자, 보호자입니다.
내 손으로 이 사슬을 풀어줄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전원 교실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프라이 교장의 압도적인 권위와 단호함에 유관순과 학생들은 더 말을 얹지 못한다.
유관순은 입술을 깨물고, 학생들은 슬픔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인다.
교장의 명령에 수긍하듯, 학생들은 천천히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프라이 교장은 잠시 결사대를 바라보다가 소란이 있는 곳을 돌아보며 퇴장.

유관순 …얘들아, 담을 넘어서라도 가자. 빨리.

노희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금 떨리면 목소리로)
관순아… 진짜 하려고? 안 돼….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신신당부하셨잖아.
가지 말라고…

학생 1 (희자의 말에 동조하며 발을 동동 구른다)
맞아, 우리 걸리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지도 몰라.

김복순 얘들아 지금 거리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지금 퇴학이 문제야?

학생 2 하지만… 무섭단 말이야….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말씀 어기고 나갔다가, 진짜 끌려가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설이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유관순 나도 무서워 얘들아.
나도 칭찬받는 학생이고 싶고, 안전하게 있고 싶어.
근데, 우리 다 배웠잖아.
이 나라에 무엇이 정의인지, 양심이 뭔지 다 알게 됐잖아.
나한테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부끄러움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야.

서명학 여기야, 여기! 이쪽 담벼락 밑에 벽돌 쌓여 있어.
선생님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야.

국현숙 (망설임 없이 명학을 향해 뛰어가며) 내가 먼저 넘을게. 명학아, 밑에서 등 좀 받쳐줘
서명학 (엎드려서 디딤돌을 만들며) 어, 조심해. 치마 밟지 말고!
국현숙 (명학의 등을 밟고 가뿐하게 담 위로 올라간다.)
좋아. 여기 내릴 만해. 바로 다음 사람 올려보내!
김복순 (희자의 등을 떠밀며) 희자야 얼른 움직여. 교장 선생님 다시 오시기 전에
노희자 …모르겠다 진짜 우리 옳은 일 하고 있는 거 맞지?
김복순 (희자의 등을 받쳐 올려주며) 당연하지! 얼른 가기나 해! 떨어지지 말고!

서로의 옷자락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며 일사불란하게 담벼락을 넘는다.
마지막으로 담에 오르던 유관순이 멈춰 서서 이화학당의 정문을 눈에 깊이 담는다.
저 멀리서 수많은 군중의 만세 소리와 발소리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유관순, 담 너머로 몸을 던진다.

암전.

S#9. 1919년 3월 10일. 휴교령 공포.

유관순 … 얘들아, 나 할 말이 있어.
총독부 (제복을 매만지며, 비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원. 모두 집중해라
유관순 이 휴교명령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지도 몰라
총독부 저들에게 기회를 줘선 안된다
유관순 우리는 아직 돈 한 푼 제 손으로 못 버는 학생들이야.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
총독부 (책상 위의 나무 막대기 하나를 부하에게 던지며)
너희들은 조센징이 우습나? (막대기를 주며) 부러뜨려봐라
유관순 하지만 우리에겐 목소리가 있어
총독부 쉽나? 그렇다면 이것도 해봐라 (막대기 3개를 주며)
유관순 우리는 고작 다섯 명뿐이지만…
우리가 각자 고향으로 흩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내 고향 천안으로 가고, 너희도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서
총독부 그럼 이건 어때? (막대기 20개를 주며)
저들은 아직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한 시라도 잊으면 안된다.
이곳은 대일본이 아니다!
절대 이 폭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관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차례가 온 거야,
총독부 조센징들은 지독해. 밟아도 밟아도 죽지를 않아.
여기서 놀고있을 텐가? 철저히 짓밟아라!
유관순 그리고 꼭, 살아서 보자.

S#10. 1919년 3월 13일, 유관순의 집 인근

사애리시 (멀리서 유관순을 먼저 알아보며) …관순아!!
유관순 (사애리시를 발견하고 달려와 품에 안긴다) 선생님…! 선생님

유관순과 사애리시가 서로를 발견하고 달려와 부둥켜안는다.

사애리시 (유관순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과 몸을 살피며)
무사했구나… 오, 주여. 다친 데는 없는 거지?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다 잡혀갔다고, 학교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유관순 저 무사해요, 선생님.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 속에서 같이 우리 나라의 독립을 외쳤어요!
선생님, 저 다른 생각 안 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숨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싶었어요.
사애리시 그래… 무사하니 됐다. 관순아,
이곳은 아직 조용하니 고향에 내려온 김에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좀 쉬도록 하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벅차고 동시에 선생님은 너무 무섭구나.
세상 잠잠해지고 학교 다시 열리면, 그때 올라가서 마저 공부를 더 하면 되겠지
유관순 선생님, 저 고향 집에서 뜨끈한 밥이나 얻어먹고 숨어 있으려고 건너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서울에서 탑골공원 독립을 위한 시위에 참여하며 배운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꿈이 있고, 꿈을 이루려면 나라의 독립이 필요해요.
그 독립이라는 선물은 독립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일텐데
우리가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해요.
휴교가 되어 우리가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다짐한 것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과 함께 이곳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당당히 외치고 싶어요.
천안 사람들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도 독립을 위한 시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애리시 관순아! 네 말이 맞다. 백 번이고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난 네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립은 너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지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 후에 40여년을 방황하고
오랜 역사를 걸쳐 독립을 이루어낸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해.
믿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말이야.
유관순 선생님!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선생님의 삶을 통해 배운 진실이에요. 제말이 틀렸나요?

유관순 어느 봄날 성경 수업 시간이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희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과 실천은 하나이다.
그 행동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것이다.
전 똑똑히 들었어요. 선생님 목소리, 그날의 공기까지. 전 전부 다 어제 일 같아요.

사애리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지. 진심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유관순 그런데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사애리시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다.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
시기가 꼭 지금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유관순 지금일 수도 있잖아요.

사애리시 아니! 아니야 관순아! 지금이라면 너희의 희생이 너무 커.
난… 난, 너희의 꿈을 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가 꺾이는 것을 볼 수 없어.
난 교육자로서 그렇게 너희를 사지로 내몰 수 없어!
제발! 제발 이번에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없겠니?
한 번만 관순아!

유관순 한 번만이요? 선생님!
그 한 번만 저의 귀와 눈을 가리라는 말씀이세요?
저들이 학교 문을 닫아걸었을 때, 전 알았어요.
저들이 진짜 가두고 싶었던 건 내 몸뚱이가 아니라, 내 눈이었구나.
모두가 무서워서 눈 감고 숨어버리면, 이 땅은 영원히 깜깜한 무덤이에요.
누군가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눈먼 사람들한테 여기가 길이다, 저기 빛이 있다고…
자기 몸을 태워서라도 가리켜 줄 미련한 인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잖아요.

사애리시 관순아, 너는 뭘 믿는 거니?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유관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그 애통,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는 그 애통하는 자라고.
저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겼어요.
희생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이 제가 가야할 애통의 길이라면 기꺼이 가겠어요.

사애리시 (손을 뻗어 유관순의 얼굴을 투박하게 쓰다듬는다. 애써 덤덤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샌다)
언제 이렇게 컸니. 코 흘리며 성경책 들여다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 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키워낸 거니.

유관순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믿음이 없던 관순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애통의 길을 걸어가는지,
침묵으로 잠잠했던 우리 고향의 갈망을 어떻게 깨우는지요.

S#11. 1919년 3월 중순, 비밀 아지트

마을 사람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방 한편에는 태극기를 만들 천과 먹, 실이 놓여 있고,
다른 한편에는 봉화를 올릴 성냥과 소나무 가지, 볏단과 마른 쑥이 준비되어 있다.

(천안의 뜻있는 어른들과 청년들, 민중들이 좁은 방에 빽빽하게 모여 있다.
유관순이 무대 중앙에서 서울의 만세운동 상황이 적힌 독립선언서를 펼치며 제안한다.)

유관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독립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표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 이땅의 주인이 우리임을 외칠 때가 왔습니다.
서울에선 이미 온 민중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천안이 이곳 아우내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외쳐야 합니다.

마을 주민 1 옳소! 관순이가 말 한 번 잘 하네.
(지도를 펼치며) 거사는 장사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이 좋겠소.
1일이랑 6일이 장날인데. 4월 1일이 딱 좋겠네.
서울에서 만세가 터진 지 정확히 한 달째되는 날이기도 하고,

마을 주민 2 (박수를 짝! 치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거요.

마을 주민 1 그러네!

유중권 날짜가 정해졌으니 일경들의 눈을 피해 태극기를 찍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밤낮없이 움직여야 하겠죠. (쾌활하게 소매를 걷으며)

유관순 오빠, 오빠가 손재주가 좋으시니 태극기 밑그림을 좀 그려주셔요.
손재주 없는 동생들은 먹을 칠할게요.

유우석 걱정 마라! 이 오라비가 밤을 새워서라도 장터를 가득 채울 만큼 그려낼 테니.

마을 주민 2 신나는구만

다함께 이렇게라도 우리가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M07. <한 장 더>

유관순

가운데는 붉고 푸른 태극을!
네 모퉁이에는 건곤감리를!
자, 다들 붓을 드세요. 쉴 틈 없이,
일사분란하게 가봅시다!

청년들

검은 먹 갈아라! 벼루가 깨어져라 갈아라!

유관순/주민들

스윽- 삭! 붓끝에 기개를 담아!
스윽- 삭! 주저 없이 내질러라!

아주머니들

어이쿠, 신바람이 나네! 신바람이 나!
하얀 천 조각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할머니

뭐가 그리 좋으냐?

아주머니들

눈앞이 캄캄했는디, 이 검은 먹이 칠해질 때마다
가슴에 불이 확 켜지는 것 같아요! 쿵쾅거려요!

유관순/주민들

빳빳한 무명천 위에 해가 뜬다, 달이 차오른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 우리가 맨 앞줄에 선다!

너는 먹을 갈아라 (착!) 나는 붓을 휘두른다 (삭!)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쉼 없이 찍어내라 팍팍!

한 장 더! (스윽- 삭!) 한 장 더! (스윽- 삭!)
장터를 가득 채울 태극기!
한 장 더! (스윽- 삭!) 한 장 더! (스윽- 삭!)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아이 관순 언니! 이거 다 만들면 정말 사람들이 올까?

유관순 오고말고! 우리처럼 가슴에 불을 품은 사람들이 골목마다 넘쳐날 거야.
역사적인 잔칫날이 될 거란다!

유관순/주민들

동이 트는 새벽을 향해, 힘차게 넘겨라
한 장 더 (쾅-!)

유관순

이 무명천 다 채우면, 바로 오늘 밤!
나 매봉산 높이 올라 첫 불꽃을 댕기리라!
온 천안의 눈을 깨울 뜨거운 신호탄!

전원

동이 트는 새벽을 향해, 힘차게 넘겨라
한 장 더(쾅-!)

유관순 이번 만세운동은 아우내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50리 밖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마을 주민 1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소식을 전한단 말이오?
(허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유관순 오늘 밤 자정, 제가 매봉산 정상에 올라가 첫 번째 불을 피울 겁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 불을 신호 삼아 수신, 성남, 목천에서도 바로 봉화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하늘이 수십 개의 불꽃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내일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요.

이소제 (방 한구석에서 칭얼거리는 어린 제경이를 달래며)
아이고 제경아, 지금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울지 마, 응?

유관순 어머니, 제경이는 제가 업고 갈게요.
안 그래도 태극기 찍으시느라 손이 모자라는데, 애까지 보채면 일 못 하셔요.
얜 원래 제가 제일 잘 달래잖아요.

유중권 제경이까지 업고 혼자 그 컴컴한 산길을 가겠다는 것이니?
차라리 이 아비가 가마.

유관순 제경이가 등 뒤에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녀석이 등 뒤에서 쌕쌕 숨을 쉬면,
꼭 주님이 제 등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유관순의 의연함에 주민들과 유중권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진다.

유관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듯, 비장하고 당당한 눈빛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저 먼저 갑니다.

유관순이 문밖으로 당당하게 첫 발걸음을 내딛으며 마을을 돌아본다.

유관순 다들 태극기 꼭 챙겨서, 내일 장터에서 만나는 겁니다!

S#12. 1919년 3월 31일, 매봉산 중턱

무대는 어두워진다. 바람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유관순은 무거운 볏단 보따리를 들고, 두살배기 조카 제경을 등에 업은 채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오른다.

유관순 어휴, 무서워라. 제경아, 자니? 등이 많이 춥지. 미안해.
이 밤중에 고모가 너까지 업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경을 고쳐업는다)
제경아, 고모가 왜 이 무거운 볏단을 메고 산으로 왔는지 아니?
지금 아래 동네선 네 삼촌 관석이랑 어른들이 숨죽여 태극기를 찍고 있단다.
들키면 당장 일경들에게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다들 손이 부르트도록 목판을 누르고 있어.
왜냐하면 말이지…. 너희에게는 진짜 봄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
지금 조선 땅 어디를 가도 이름 없이 아무렇게나 불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니.
여자아이는 글을 배워서 뭐하냐고 쫓겨나고… 고모는 우리 관석이도,
내 품에 안긴 너도, 그런 깜깜한 겨울 속에서 평생을 살게 두고 싶지 않아.
… 사실 고모도 조금 무서워.
내가 이렇게 하다가 덜컥 죽어도, 하늘에 상금 같은 건 없을까 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막 쿵쾅거려.
그래도 올라가야 해. 나는 눈을 떴으니까.
아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둠이 무섭지 않지만…
한 번 빛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
아직 어둠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불을 붙여줘야지.
(잠깐 멈춰서서 산 정상을 가리키며)
저~기 꼭대기에 가서 이 볏단에 불을 피울 거란다.
이 불빛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 아침이면 온~땅에 만세 소리로 가득 찰 거야.
그러면 이 지독한 겨울이 끝나고 우리 제경이도,
집에 있을 관석이도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진짜 봄이 온단다.
고모가 꼭 그 봄을 선물해 주게. 조금만 참자, 내 조카.

유관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정상에 다다른다. 무대 중앙에 볏단을 내려놓고 횃불을 든다.
불을 붙이려던 손을 거두고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눈을 감으며 기도를 시작한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춘다.

유관순 주님 제가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유중권 주님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관순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되찾지 못할까 너무 두렵습니다.
유중권 관순이가 만세운동 도중 잘못될까봐 이 아비의 가슴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유중권 주님, 이 고통받는 땅을 굽어살펴 주소서.
유관순 아버지, 홀로 횃불을 든 내 어린 딸을 지켜주소서
유중권 수많은 동포들이 부르짖나이다
유관순 작은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가나이다
유중권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물 대신 희망을 바라게 하소서.
유관순 독수리 같은 날개로 그 어린 생명을 덮어주사, 부디 성하게 하소서
유중권 내일 아우내 장터에 모일 발걸음들을 친히 인도하소서
유관순 내일 장터가 피바람이 될지라도, 내 딸의 걸음만은 안전하게 하소서
유중권 이 몸이 썩어질 밀알이 될지라도…
유관순 주님, 차라리 이 아비의 목숨을 거두시고… 저 아이만은 살려주소서.
유중권 저 어린 딸만은 제발 지켜주소서…
(횃불을 하늘 높이 번쩍 치켜들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다)
유관순 주님의 새벽을 허락하소서

S#13.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유관순의 봉화를 신호로 무대 한편에서 조명이 탁. 켜지며 또 다른 횃불이 솟아오른다.
이어 우측 산에서 탁, 좌측 산에서 탁, 켜지며 순식간에 불빛들이 어둠을 가른다.

유관순 대한 독립 만세!

북소리와 함께 무대 전체가 환하게 밝아진다.
사방에서 태극기를 든 민중들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민중들 군단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유관순 (단상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 웅변하듯)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어 살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다는 게, 왜 자꾸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허락합니까.
우린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대한의 백성이고, 죽어도 대한의 백성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유관순 (단상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 웅변하듯)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어 살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다는 게, 왜 자꾸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허락합니까.

우린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대한의 백성이고, 죽어도 대한의 백성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M09. <위대한 사람>

민중들

짓밟힌 흙먼지 속에서도 붉은 피는 흐르고
빼앗긴 들판에도 서서히 봄기운이 차오른다

민중들 2

그들이 가둔 것은 우리의 몸일 뿐
저 하늘을 흐르는 내 마음은 결코 가둘 수 없네

민중들 소수

물러설 곳 없는 발걸음,
이제는 두려움마저 고개를 숙이네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승리가 아냐
내 나라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민중들 전체

한반도 삼천리 우리 강산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 걸!
칼바람 몰아쳐도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새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만세! 만세! 독립운동 만세!

유관순이 태극기를 품에 안고 민중들의 대열 선두로 당당하게 걸어 나온다

유관순

저들이 총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암흑 속에 가둘지라도
가슴속 타오르는 불꽃은 꺼뜨리지 못하리
내 목숨 다하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유관순/민중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머지않았으니
뜨거운 함성으로 이 거리를 가득 채우리라
단 한 번을 살아도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자유의 불씨를 온 세상에 퍼뜨리리라!

민중들 전체

한반도 삼천리 우리 강산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인 걸!
칼바람 몰아쳐도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새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만세! 만세! 독립운동 만세!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진국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그림자들이 일렁인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극장을 찢는다.

탕——!!!!

총성과 동시에, 무대에 붉은 조명이 번쩍인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에 유관순 오직 혼자 뿐이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총성,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자 군단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유관순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안 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유관순 (탕! 탕! 연이어 터지는 총성에 귀를 막고 주저 앉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 쓰러진 이들을 붙잡고 통곡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된다.
무대 위 사람들의 그림자가 사방으로 엉키며 혼란스러워진다.

유중권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일경들을 향해 달려든다)
이 사람새끼도 아닌 것들…!! 어찌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일본 경찰 한 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유중권을 발견하고 총구를 그의 가슴에 고정한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유중권이 바닥으로 쓰러진다. 유중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구역에 핏빛 같은 붉은 조명이 강렬하게 번쩍인다.

유관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어간다)

그 순간, 또 다른 일본 경찰이 주저앉은 유관순을 향해 온다. 이를 본 어머니 이소제의 그림자가 아무런 비명도 없이 일경과 유관순 사이로 몸을 펼치며 날아와 가로막는다.

이소제가 유관순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을 때, 유관순 대신 칼을 맞고 툭 고꾸라진다.
그 순간 그녀가 마지막 목소리를 낸다.

이소제 내 자식은…
(말끝이 흐려지며 고개가 힘없이 꺾인다)

봉화의 빛으로 가득 차 있던 무대에 이제는 단 몇 점의 불빛 밖에 남지 않았다.

M10. <이소제와 유중권의 노래>

넘버를 알리는 선율이 시작한다.

유관순 (어머니를 끌어안고 흔든다)
어머니… 어머니 눈 떠봐요… 어머니…

총성이 멎는다. 무대 위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춘다.
조명이 좁아지면서 어둠 속에 정지한 군중들은 실루엣만 남는다. 무대
중앙, 쓰러진 유중권과 이소제, 그리고 그 사이에 주저앉은 유관순만이 빛을 비추고 있다.

유관순

어머니, 왜 눈을 감아요.
나 이제 혼자서 어디로 가요.
길을 잃었는데, 나 이제 누굴 보고 걸어요.

이소제

널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알았단다
너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맡겨진 귀한 목숨이라는 걸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으니
너의 걸음은 결코 외로워지지 않으리
더 큰 품으로 가거라
너는 안전할지니

유중권

두려워 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안전하리니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너의 참 아버지가 계시니
그날에 보자

노래가 끝나는 순간, 정지해있던 시공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본 경찰이 움직임을 재개하며 유관순을 향해 다가온다.

일본 경찰 주동자다! 당장 끌고 가!
유관순 (부모님의 시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다)
엄마!!! 아버지!!!! 이거 놓아라!!

S#13.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

유관순의 봉화를 신호로 무대 한편에서 조명이 탁. 켜지며 또 다른 횃불이 솟아오른다. 이어 우측 산에서 탁, 좌측 산에서 탁, 켜지며 순식간에 불빛들이 어둠을 가른다.

유관순 대한 독립 만세!

북소리와 함께 무대 전체가 환하게 밝아진다. 사방에서 태극기를 든 민중들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민중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단상 위에서 백성들을 향해 웅변하듯)

여러분, 저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숨어 살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다는 게, 왜 자꾸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허락합니까.
우린 오늘 죽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대한의 백성이고, 죽어도 대한의 백성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용사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M08. <위대한 사람>

민중 1, 2

짓밟힌 흙 속에 흐르는 피
빼앗긴 들에도 차오르는 봄기운
가둔 건 우리 몸일 뿐
하늘을 향한 마음은 가둘 수 없네

민중들

물러설 곳 없는 발걸음

두려움마저 숙인 고개
바라는 건 거창한 승리가 아닌
내 나라 하늘 아래 숨 쉬는 삶

민중들(전체)

이제 불어온다 자유의 바람
우리는 이 땅의 주인
칼바람 속에 손을 잡고
새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총칼의 위협, 암흑의 감옥도
타오르는 불꽃은 꺼뜨리지 못해
내 목숨이 다하는 날이 와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나아가리

유관순&민중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뜨거운 함성으로 거리를 채운다
단 한 번을 살아도 당당한 주인이 되어
자유의 불씨를 세상에 퍼뜨리리

민중들(전체)

불어온다 자유의 바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하나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서로의 손을 잡고
새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유관순

위 대 한 사람 대한으로

유관순&민중들

길이 보전하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진국하는 사람들의 거대한 그림자들이 일렁인다. 갑자기 날카로운 총성이 극장을 찢는다.

탕──!!!!

총성과 동시에, 무대에 붉은 조명이 번쩍인다. 아수라장이 된 무대 위에 유관순 오직 혼자 뿐이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총성,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자 군단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

유관순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안 돼…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탕! 탕! 연이어 터지는 총성에 귀를 막고 주저 앉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람들, 쓰러진 이들을 붙잡고 통곡하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된다. 무대 위 사람들의 그림자가 사방으로 엉키며 혼란스러워진다.

유중권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일경들을 향해 달려든다)
이 사람새끼도 아닌 것들…!! 어찌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일본 경찰 한 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유중권을 발견하고 총구를 그의 가슴에 고정한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과 함께 유중권이 바닥으로 쓰러진다. 유중권의 그림자가 서 있는 구역에 핏빛 같은 붉은 조명이 강렬하게 번쩍인다.

유관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려 하지만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기어간다)

그 순간, 또 다른 일본 경찰이 주저앉은 유관순을 향해 온다.
이를 본 어머니 이소제의 그림자가 아무런 비명도 없이 일경과 유관순 사이로 몸을 펼치며 날아와 가로막는다.

이소제가 유관순의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을 때, 유관순 대신 칼을 맞고 툭 고꾸라진다.
그 순간 그녀가 마지막 목소리를 낸다.

이소제 **내 자식은…**

(말끝이 흐려지며 고개가 힘없이 꺾인다)

봉화의 빛으로 가득 차 있던 무대에 이제는 단 몇 점의 불빛 밖에 남지 않았다.

유관순 (어머니를 끌어안고 흔든다)
어머니… 어머니 눈 떠봐요… 어머니…

총성이 멎는다.
무대 위 모든 시민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춘다.
조명이 좁아지면서 어둠 속에 정지한 군중들은 실루엣만 남는다.
무대 중앙, 쓰러진 유중권과 이소제, 그리고 그 사이에 주저앉은 유관순만이 빛을 비추고 있다.
일본 경찰이 유관순을 향해 다가온다.

유관순 (어머니를 끌어안고 흔든다)
어머니… 어머니 눈 떠봐요… 어머니…
일본 경찰 **주동자다! 당장 끌고 가!**
(부모님의 시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는다)
엄마!!! 아버지!!!! 이거 놓아라!!
(일본 경찰들이 유관순의 양팔을 거칠게 꺾고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간다. 민중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유관순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암전]
무겁고 차가운 철문 닫히는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진다.
쿵──!!!!
이어 가죽 채찍 소리, 쇠사슬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 모진 고문에 신음하는 유관순의 비명이 들린다.
정적
어둠과 정적 속에서 옥중 유관순의 기도가 담긴 노랫말이 흘러나온다.

M03. <봄의 주역> - Reprise

유관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갇혀있는 동포들을 품고.
순한 마음으로 상처 가득한 이 나라를 보듬는 사람.
사슬을 끊고 나갈 그 길을 내가 먼저 찾을거야

유관순의 노랫말이 어둠 속에서 울려퍼지며 다음 장으로 전환된다.

S#14. 1920년 초가을, 새벽의 투쟁

사애리시가 유관순의 새 옷과 새 신발을 정돈하며 설레는 독백을 한다.

사애리시 관순아,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네가 돌아오면 이 어미가 새 옷을 입히고 머리를 정성껏 빗어줄게.
네가 없는 동안 이 영명동산이 얼마나 적적했는지 몰라.
아마 로버트가 하늘에서 널 지켜주었겠지.
이제 다시 널 품에 안을 수 있겠구나.

M09. <이제 집으로 가자>

수감자들

가을바람 세차게 부는 8번방
기다리던 봄은 오지 않고, 새벽별이 지는구나
철창 너머 서리 찬 바람 속에서도
네가 품은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믿었는데

차가운 바닥, 얼어붙은 이 새벽에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오 왜 말이 없는가
짓밟힌 꽃잎이 소리 없이 저무는데
우리 기억 속의 새벽은 어디로 가는가

사애리시

거기 내 딸이 있다, 저 차가운 어둠 속에
내 손으로 입히려던 새 옷이 여기 있는데
어찌 감히 그 순결한 영혼을 가두는가
어찌 감히 그 작은 숨을 빼앗아 갔는가

일본 순사

물러서라 이방인, 여기는 대일본제국의 법정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복종뿐이다
더 이상 선동하지 마라, 쥐도 새도 모르게
너 또한 이 어둠 속에 묻어버릴 수 있으니

사애리시

가두어라, 내 육신은 가둘 수 있을지라도
너희가 저지른 추악한 만행, 온 세상이 보게 하리라!
이 피비린내 나는 감옥의 문을 열어
모든 사람 앞에 너희를 세우리라!
낱낱이 폭로하리라, 전 세계의 언론 앞에!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일본 순사들

(저 여자의 눈빛을 보라, 두려움이 없다)
위에서 알게 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입을 막아야 한다)
이 이방인의 고발을 막아야만 한다!

일본 순사

…알겠소, 단 조건이 있소.
고문의 흔적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장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단 하나의 깃발도 없이.
이것이 타협의 전부요, 어기면 시신은 없다.

사애리시

핏자국으로 가득 찬 너의 마지막 길을
어미가 눈물로 씻어내어 안으리라
비록 소리 없는 장례식, 깃발 하나 없을지라도
네가 남긴 새벽의 서곡은 멈추지 않으리니

우리암&수감자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다
그녀가 흘린 피가 이 땅의 씨앗이 되리

사애리시

가자, 관순아. 이제 집으로 가자.
네가 시작한 이 투쟁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리라.

S#15. 1920년 10월 14일, 유관순의 장례식

1막 1장의 장례식 장면으로 전환된다. 무대 중앙에는 굳게 닫힌 관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일본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장례식은 치러진다.

사애리시　　아이고… 관순이 저 가여운 것을 어쩌나…
그렇게 배우더니 끝내 그 귀한 숨을 이렇게 앗아가 버리는구나. 이 모진 세상에선 배운 게 죄지, 배운 게 죄야….
이 아이를 불쌍하다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 놀라 사애리시를 쳐다본다.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사애리시　　당신들 눈엔 무엇이 보입니까.
자라다 꺾인 꽃이 보입니까
제때 피어나지도 못하고 내다버려진 것으로 보입니까
관순이는 땅에 묻히길 바란 게 아닐 겁니다.
스스로 심겨지길 바랐을 겁니다.
눈 뜨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 어리석은 선생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보더군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관순이가 품은 그 푸른 뜻은 조금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칠흑 같은 밤 속에서도… 마침내 떠오를 찬란한 내일을 보았고, 그 새벽을 위해 제 전부를 던진 것이니까요.
(가슴에 천천히 손을 얹으며)
주님…… 왜 관순이를 먼저 데려가시고, 이 미련한 저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제게 맡겨주신 것이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나에게는 왜 이리 길고 지난한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M10. <새벽의 서곡>

수감자들

당신의 새벽에 울리는 서곡은
어떤 서글픈 이야기를 가지고있나요
그토록 아는 것이 아픔이 되던 밤
그토록 배운 것이 독이 되던 밤

나의 새벽에 울리는 서곡은
두려워도 두렵지 않아야 했고
슬퍼도 슬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나의 서곡에는 그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사애리시　　아이고… 관순이 저 가여운 것을 어쩌나…
그렇게 배우더니 끝내 그 귀한 숨을 이렇게 앗아가 버리는구나.
이 모진 세상에선 배운 게 죄지, 배운 게 죄야….
이 아이를 불쌍하다하지 마십시오.

앙상블

여기 새벽을 깨우는 불꽃들이 일어난다
이제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외침이 시작된다

앙상블

우리의 투혼과 패기
(우리의 투혼)
우리의 혈과 눈물
(우리의 눈물)

그 작은 횃불 하나하나가 모여
이 땅의 짙은 어둠을 난도질하리니
이 모든 격동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요
이 모든 피 흘림은 하늘의 뜻을 위한 것이라!

새 날의 새벽에 울리는 서곡은
마침내 아는 것이 빛이 되는 세상!
하늘의 새벽에 울리는 서곡은
배운 것이 축복이 되는 거룩한 나라!

보라, 저 아이의 외침은 끝나지 않아
모진 한파를 녹이고 눈부신 기적을 깨우리라!

그날을 향해, 전진하리라!